

※ 별첨: 보고서 1부

[보고서 작성 양식]

- ★ 분량: A4 3장 이상(사진 포함 필수)
- ★ 여백: 좌·우 2cm, 상(머리말 포함) 3cm, 하(꼬리말 포함) 2cm
- ★ 줄간격: 160%
- ★ 글자 크기: 휴먼명조 12포인트
- ★ 다음 내용 작성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KB 해외 장기체류 보험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해서 기본 질병은 최저가로 선택했는데,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만큼 자연재해 부분은 최대로 설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격은 6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비자의 경우는 대행사를 통해 유학 비자를 준비했어야 했기에 강남 유니티스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대행비는 5만원이 들었습니다. 파견교에서 받은 COE, 비자신청서, 여권, 주민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COE가 조금 늦게 나와서 걱정했는데 비자는 일주일도 되기 전에 빨리 발급되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도 편리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는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본 수화물 무게가 17KG 이기에 비교적 무게에 있어선 넉넉하게 짐을 패킹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한국에서 가져가서 유용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물품은 바로 전기장판입니다. 봄학기 파견이시라면 괜찮겠지만 역시 일본의 겨울, 실내는 꽤나 춥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전기 볼트가 다르기에 인터넷에서 프리 볼트 전기담요를 구매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셰어하우스에 거주하실 경우엔 광열비는 무료라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괜찮긴 한데, 역시 바닥이 따뜻한 것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전기 장판을 가져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인근 니토리 같은 가구 상점에서도 판매하는데 가격이 조금 더 비쌌고 한국 것에 비해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아플 것을 대비해서 감기약 역시 병원에서 처방해서 가져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에서도 건강보험증 카드가 나와서 병원에 갈 순 있지만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절차가 복잡해보여서 마음 편하게 2주치 감기약을 한국에서 타갔는데 유용했습니다. 이 외에 물품은 일본에

서도 모두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리에 다이소나 가구 상점 니토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파견 국가는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유럽이나 영어권에서 온 유학생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일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본의 특징이라면 분리수거 방법이 복잡합니다. 모에루 고미를 버리는 일, 페트병을 버리는 일, 캔을 버리는 일 등등 모두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통행 방향이 반대입니다. 물가는 저렴한 편입니다. 식재료비나 외식비가 한국과 비교하면 저렴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야마구치 대학교는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입니다. 야마구치시는 2024년 타임즈가 선정한 방문해야할 세계 여행지 중 3위로 손꼽힐만큼 자연환경이 아름답습니다. 서쪽의 교토라는 호칭이 있을 만큼 고즈넉한 일본 시골이 매력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야마구치 대학교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야마구치 대학의 유학생 쉼어하우스까지 픽업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까지 가는 과정이 편리했습니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마친 후 8월 말 즈음 픽업 버스 신청을 받는 폼이 열리기에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후쿠오카 국제선에서 출국하면 바로 앞, 야마구치 대학의 관계자 분들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기 때문에 헤맬 걱정도 없습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의 픽업 버스 비용은 대략 4000엔 정도이고 기숙사 이불 대여비와 청소비를 지불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함께 현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공항에서 학교로 넘어가는 버스 안에서 방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쉼어하우스는 번호키가 아닌 열쇠로 문을 여는 형식이기에 열쇠를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야마구치 내부에서 일본어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온 일본어 레벨을 기준으로 야마구치 대학교에서 어떤 레벨의 일본어 수업을 수강할지 나뉘어집니다. 대부

분 한국인의 경우는 레벨4를 수강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레벨4는 JLPT N2 정도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일본어 수업 말고도 원한다면 본교 재학생들이 듣는 수업 역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 종합학부였기에 국제 종합학부에서 열리는 ‘일본 기업 문화’ 나 ‘운동과 건강’ 등 다양한 수업을 재학생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운동과 건강의 수업에 경우는 제가 수업에서 유일한 유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기말고사 대신 레포트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제 종합학부가 워낙 유학생들이 많고, 일본 재학생들도 다른 나라로 유학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유학생에 대해 친화적인 편입니다. 수강신청에 독특한 점은 1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쿼터가 2개로 나누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쿼터3, 쿼터4 의 개념이 있어서 쿼터 3만 듣는 수업 역시 존재합니다. 수강신청을 처음할 때 쿼터3과 쿼터4의 과목까지 모두 신청을 하긴 하지만 쿼터4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수업에 경우는 쿼터와 상관없이 풀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수업은 일본 사정이라는 수업입니다. 일본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수업인데 상당히 참여하는 활동이 많고 상냥한 교수님 덕분에 한 학기 내내 즐거웠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야마구치 대학교의 유학생들은 따로 유학생들끼리 거주하는 YU 국제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거나,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학생 셰어하우스에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셰어하우스는 3명이 룸메이트가 되며 공용 주방, 공용 거실을 함께 공유하고 각각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의 사이즈가 상당히 넓으며 수납 공간 역시 넓어서 물건을 보관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는 학교가 대여해주어서 이 점이 편리했습니다. 셰어하우스의 방세는 전기, 가스와 같이 광열비를 포함해서 한달에 29000엔입니다. 이 29000엔을 매달 14일,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는데 전 한 학기 유학이라 크게 유초 통장을 만들지 않고도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셰어하우스와 학교와의 거리는 조금 먼 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편도 20분이 걸리는데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도 적응이 되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전거 역시 학교에서 유학 기간동안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의 생활은 매우 즐겁습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 중국, 태국, 헝가리 등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가끔 자신의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먹는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 일본인 재학생 4명 역시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베 파티, 휘귀파티 등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여러 친구를 사귄 수 있어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원래 셰어하우스의 세탁기 사용료는 100엔이었는데 얼마전 세탁기 사용료가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건조기가 사라졌기에 옷을 말리기 위해선 방에 걸거나 인근의 코인 란도리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나-5. 교내·외 활동

일본은 부활동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같은 밴드부라고 해도 경음부가 5-6개 존재할만큼 씨클의 개수도 많고, 포켓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끼리 씨클을 만들만큼 독특한 동아리도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유학생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한 축에 속하는데 저는 배드민턴 동아리와, 밴드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야마구치로 교환유학을 오실 분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정도로 저는 동아리에서의 즐거운 추억이 가장 많습니다. 밴드를 좋아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에 교환 유학을 온 만큼 일본의 밴드부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본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라이브하우스에서 보컬로 무대를 했던 것이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유학생들을 서포트하는 ‘유사포’ 라는 동아리 역시 야마구치에 존재합니다. 이 유사포에서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운동회, 서예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야마구치에 도착해서 바로 일본의 통신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교환학생 라인모의 경우, 외국인 신분으로 통신사를 가입하려면 재류카드가 필요한데, 처음 공항에서 받은 재류카드의 경우는 뒤에 주소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야마구치에 도착하게 되면 유학생 학생 부서에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관리자 분들이 재류카드를 가져가 주소를 적는 절차를 진행해주시는데 다시 돌려 받을 때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도착하고는 2-3주 가량 한국에서 이심을 구입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귀국하실 때 이심의 기간을 넉넉히 잡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의 통신사의 경우 많이 있지만, 유학생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라인모를 사용하는 추세였습니다.

야마구치 셰어하우스에 입주한 다음날, 이전 유학생 친구들이 두고간 물품을 나눔하는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일찍가서 생필품을 얻어오는 것이 유용합니다. 드라이기, 고데기, 옷걸이 같은 물건들을 플리마켓에서 얻어서 초반에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에서 드라이기를 얻지 못했다면 학교 인근에 있는 ‘세컨드 스트리트’ 라는 중고상점에서 드라이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마구치 대학교에서 대여 받는 자전거의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의 자전거를 받은 친구 역시 존재했습니다. 셰어하우스의 자전거는 근처 ‘아사히’ 라는 곳과 제휴를 맺고 있어서 셰어하우스의 유학생들이 그곳에서 기름칠하는 것이 무료였는데, 아사히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트의 경우 현금 밖엔 안 되지만 ‘코스모스’ 라는 마트가 가장 저렴합니다. 세금이 없어서 처음 샴푸,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은 이곳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의 경우 셰어하우스에서 가장 가까운 ‘아루쿠’ 라는 마트에서 저녁 7-8시 즈음

에 타임세일을 하고 있으니 그때 음식을 구입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얻을 수 있어 애용했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야마구치 현내라면 하기시의 벤탐 호수, 츠노시마 대교, 에비야구라, 긴타이교 등등을 다양하게 다녀왔습니다. 일본인 친구가 운전해주는 차로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고 국제 면허증을 들고온 유학생 친구들도 꽤나 있어서 다함께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카르스트 대지인 야키요시 동굴과 야키요시다이가 아름답습니다. 이 둘이라면 쉐어하우스 앞을 지나가는 야마구치 시내버스를 통해서도 갈 수 있기에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현이라면 후쿠오카와 히로시마를 다녀왔습니다. 히로시마 출신의 친구가 운전해주어서 미야지마와 히로시마 원폭돔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히로시마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활발하게 여러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동아리 활동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 참여하시길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도 도전해보고, 언어가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친구들에게 말도 걸며 친구를 사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애정하는 야마구치에서 여러분도 좋은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